

문학 전문가를 위한 교육 내용의 구조화*

—신춘문예 제도와 문학교육의 역학—

서덕민**

<차 례>

- I. 서론
- II. 신춘문예 제도의 모순과 문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III. 신춘문예 제도를 위한 문학교육
- IV.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문학 전문가를 위한 교육 내용의 구조화와 신춘문예의 상관성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문학교육은 ‘교양으로서의 문학교육’과 ‘문학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문학교육’으로 위계화 할 수 있다(이희중, 2005). 이는 각 대학들이 마련해 놓은 교양국어로서의 문학 교육과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문예창작학 등에서 전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공으로서의 문학교육의 양적·질적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다.¹⁾

* 이 논문은 제48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1. 4. 8.)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강사(wjsfkr1@hanmaill.net)

1) 이희중은 교양필수로 여겨지던 ‘교양국어’가 실용학문의 ‘쓰기’영역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학에서 교양으로서의 문학교육은 점차 자취를 감춰가는 추세이다. 이는 대학의 문학교육이 문학 전문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만 존속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문예창작학과를 위시하는 창작 위주의 문학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이다. 문학 전문가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대학의 문예창작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문예창작학과 신설 붐이 일어나며 여러 대학에서 문학을 단일전공으로 하는 학과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 2011년 현재 전국의 70여개 대학에 문예창작학과가 설립되어 있다. 이 중 20여개 대학은 대학원 과정까지 설립하여 더욱 심화된 단계의 문학 교육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국어국문학을 비롯한 기타 외국어영역의 한 분과 정도로 인지되던 대학의 문학교육은 대중문화의 수요 욕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그 필요성이 각별히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전문화된 문학교육은 각종 미디어 산업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목적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방송대본의 구성 및 창작과 같은 실용학문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문학 전문가의 영역이 확실하게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문학은 어디까지나 공동제작 과정의 구성 요소, 즉 하부구조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만만치 않다. 대신 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문학작품을 원형 콘텐츠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대학의 문학교육은 대중매체의 하부 구조에 속하는 콘텐츠 제작자의 육성보다는 기성 문인 양성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종 언론사에서 행하는 ‘신춘문예’와 같은 문예공모전을 통해 작가를 배출하게 되면 문학 전문가 교육의 근본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부수적으로는 각종 언론에 대학과 학과가 노출되는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학 전문가 교육의 가장 실용적 형태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성 작가의 배출’이라는 목표로 재수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예공모전을 통한 “등단” 절차는 우리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문예공모전을 통한 “등단” 즉 ‘특별한 인준 절차를 거쳐 문인 동아리를 형성한다’는 개념의 정착과 발전 그리고 제도의 존속은 한국 문학을

설명하는, 그리고 우리의 문학교육을 이해하는 특별한 논제가 될 수 있다.²⁾(이명원, 2003a) 신춘문예를 위시한 문예공모전에 도전할 것을 장려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예 창작학과 교육과정에는 “신춘문예 시 강독”, “문학상 수상작 읽기” 등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 각각의 장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신춘문예의 시행 원칙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대학의 문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춘문예제도 혹은 우리 문학의 등단제도가 문학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신춘문예 제도의 모순과 문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논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911년 『매일신보』의 ‘신시현상모집’을 신춘문예의 기원으로 파악한다면,³⁾ 신춘문예는 이미 한 세기에 육박하는 역사를 가진 문예행사가 된다. 신춘문예의 역사를 감안한다면, 신춘문예는 그 자체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신춘문예가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 제도의 정당성을 역설할 수는 없다. 특별한 인준 절차를 거쳐

2) 이명원은 문예공모전의 대표적인 사례인 신춘문예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근대적 직인(職印)으로서의 문인의 정체성 형성 둘째, 신춘문예 제도를 통한 ‘문단’이라는 자율적 장의 질서의 공고화 셋째, 한국적 문학 저널리즘의 활성화 넷째, 근대 문학의 이념이 비교적 뚜렷하게 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 다섯째, 현상모집의 형태를 띠었다는 측면에서 문학이 예술적 노동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

3) 신춘문예의 기원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1925년 『동아일보』의 신춘문예이다. 조재영(2005a)은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근대 문학사에서 신춘문예는 『동아일보』보다 10여년 앞선 『매일신보』의 ‘신시현상모집’에 기원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문학의 장을 형성한다는 개념으로서 신춘문예는, 한 개인에게 막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특정한 권력집단을 형성케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모순을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교육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춘문예를 비롯한 각종 문예공모전을 통해 등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대학의 문학교육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문학 전문가 육성 과정, 즉 대학 산하의 평생교육원 또는 관 주도의 다양한 시민문학강좌 등에서도 ‘등단’이라는 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등단절차의 당위성은 우리의 근대문학 성립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신춘문예-등단-작가적 정체성’이라는 패턴 안에서 비롯된다(이명원, 2003b). 문학 전문가로 공준을 받기 위한 절차가 대대적 문예행사로 진행되고, 당선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종 저널의 지면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춘문예는 명백히 하나의 문학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표 1〉 최근 12년간 주요 8개 일간지의 신춘문예 시 부문 심사위원 위촉 현황

년도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동아일보
00	김규동 문정희	황동규 김주연	김명인 황지우	황동규 감태준	이시영 정호승 정과리	신경림 정현중	신경림 유종호	김혜순 김사인
01	송수권 김명인	황동규 김주연	황동규 이시영	황동규 감태준	김만조 김광규 정호승	신경림 신대철	신경림 유종호	김혜순 이남호
02	김명인 김정환	황동규 김주연	이시영 김혜순	감태준 최승호	이성부 김종철 이남호	김종해 황현산	신경림 유종호	김혜순 이남호
03	황동규 최동호	황동규 김주연	이시영 김혜순	감태준 최승호	김광규 정희성 황지우	김종해 황현산	신경림 유종호	김명인 유종호

년도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동아일보
04	김명인 김정환	황동규 김주연	이시영 김혜순	황동규 최승호	신경림 정호승 김혜순	김승희 황지우	김광규 유종호	김명인 유종호
05	김명인 남진우	문정희 황지우	이시영 김혜순	황동규 최승호	김정화 장대송 함민복	신경림 김승희	신경림 유종호	황동규 정진규
06	정현중 김명인	문정희 황지우	신경림 김명인	황동규 최승호	김기택 황인숙 김진수	김종해 김사인	신경림 유종호	최승호 김혜순
07	신경림 최동호	문정희 황지우	김명인 고형렬	천양희 정호승	김사인 김승희 남진우	김종해 문정희	신경림 유종호	김명인 김혜순
08	오세영 최동호	문정희 황지우	이문재 장석남	오세영 정호승	정호승 이승원 이문재	황인숙 최승호	신경림 유종호	이시영 남진우
09	황동규 최동호	문정희 황지우	나희덕 장석남	황동규 정호승	신경림 김사인 김기택	황지우 최정례	신경림 유종호	이시영 남진우
10	황지우 안도현	문정희 최승호	이문재 장석남	황동규 정호승	김광규 이시영 김기택	황지우 황인숙	신경림 유종호	최동호 김혜순
11	백무산 안도현	문정희 정호승	이문재 장석남	황동규 정호승	신경림 정호승 정일근	이시영 황인숙	신경림 유종호	이시영 이광호

신춘문에 제도가 문학권력을 형성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는 측면은 신춘문에 제도에 관한 많은 비판적 논의들을 생산했다.⁴⁾ 이러한 비판적 견해를 대부분은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에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12년간 신춘문에 시 부문의 심사위원 현황을 분석해보면(표 1), 거의 대부분의 일간지에서 심사위원을 고정적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적으로 위촉되는 심사위원도 문제이지만, 한 개인에게 ‘문인’이

4) 신춘문에 제도의 개선과 문학권력의 모순에 관한 것으로는 송정숙(1990), 한기(1994), 김정란(1999), 임영태(2000), 강준만(2001) 등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라는 타이틀을 선사하는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몇몇의 신문사를 전전하며 심사를 맡고 있다는 측면, 즉 심사위원들의 면면이 최근 12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부각된다.

시 부분의 경우 심사자의 주관적 견해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심사위원의 고정적 위촉은 당선작의 유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심사일정 또한 많은 문제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12월 초순까지 작품모집을 하고, 당선자에게는 12월 중순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는 1월 1일자 신문에 작품을 게재해야 하는 신문사의 일정 때문이다(조재영 2005b). 신문사의 일정에 맞추느라 촉박한 심사가 진행되면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신춘문예의 시기별 구분>⁵⁾

1. 신춘문예의 발생기(1914~1928)
2. 신춘문예의 모색기(1929~1940)
3. 신춘문예의 암흑기(1941~1954)
4. 신춘문예의 발전기(1955~1969)
 - 전후 복구와 신춘문예의 부활
 - 전후 체험과 문학적 상상력의 태동
 - 라디오 신문 매체의 영향력 팽창
5. 신춘문예의 융성기(1970~1989)
 - 문학의 신성화 작가의 지사적인 이미지
 - 문학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
- 6 신춘문예의 쇠퇴기(1990~현재)
 - 신문 매체를 대체할만한 다양한 매체의 등장
 - 신춘문예 제도의 패턴화 :
문창과의 과도한 신설이 문학의 패턴화 초래 가속화, 문학현장의 리얼리티 감소

이재복(2009)은 신춘문예의 사적 고찰 과정에서 1990년대 이후를 신춘

5) 이재복(2009)의 ‘신춘문예의 시기별 구분’ 중 ‘신춘문예의 발생’에서 ‘신춘문예의 암흑기’의 하위 항목들은 필자가 임의로 생략하였음.

문예의 쇠퇴기로 파악하고 있다. 주목해볼 것은 “문창과의 과도한 신설이 문학의 패턴화를 초래”하여 신춘문예가 쇠퇴의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다. 다소 비약이 있는 논의이기는 하지만 이는 대학의 문학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과 신춘문예의 역학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대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춘문예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감수하고 대학의 문예창작학과가 문학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은, 한국문단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법학, 교육학, 의학과 같은 분과들의 전공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나서기 위해 특별한 인준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문학 역시 신춘문예제도를 통해 해당 분야가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춘문예를 위시하는 문예공모전이 먼저 존재했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학의 문학교육에서 강구했다는 사실이다. 유형화된 창작품의 제작, 그리고 문단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순응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의 문학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당선작의 패턴화와 진부함, 표절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신춘문예에 산적한 문제들은 자체적 모순으로는 파악되지 않은 채 대학의 문학교육으로 향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신춘문예의 ‘새로움에 대한 강박증’은 고스란히 대학의 문학교육이 감당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불특정다수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전문가 집단이라는 ‘최초 독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곳에 있는 바퀴들은 이미 속도를 잃었다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자유롭다
나를 속박하던 이름도 광택도
이 속에는 없다
줄리워도 눈감을 수 없었던 내 눈꺼풀
지금 내 눈꺼풀은
꿈꾸기 위해 있다
(...중략...)
풀들은 말이 없다

말 없음의 폴들 위에서
 폴벌레들이 온다
 폴벌레들이 울면서
 내가 떠난 도시의 소음과 무작정의 질주를
 하나씩 지운다
 이제 내 속의 공기는 자유롭다
 그 공기 속의 내 꿈도 자유롭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저 흙들처럼
 죽음은 결국
 또 다른 삶을 기약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곳에서 모처럼 맑은 햇살에게 인사한다
 햇살은 나에게
 세상의 어떤 무게도 짐지우지 않고
 바람은 내 속에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씨앗을 묻는다

—박남희 「폐차장 근처」 부분⁶⁾

아파트 공터 한 귀퉁이
 속도를 잊은 페타이어
 땅속에 반쯤 묻힌 깊은 침묵 속
 햇빛을 등글게 가두어 놓고
 동그랗게 누워 있다

그가 그냥 바퀴였을 때는 단지
 속도를 섬기는 한 마리 검은 노예일 뿐이었다
 날마다 속도에 사육되고
 길들어 갔다
 다른 속도가 그를 앞질러 갈 때
 그는 바르르 떨며
 가속 결의를 다져야 했다
 자주 바뀌는 공중의 표정 앞에서는
 잼싸게 꼬리를 사려야 했다

6) 1997년 『서울신문』 시 부문 당선작.

검고 딱딱한 세계 위에서 세월을 소모하며
제한된 영역만 누려야 했다

(...중략...)

속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도에 매달린 세월
그가 속도의 덧에서 풀려나던 날
온몸이 닳도록 달려온 일생을 위로하듯
바람은 그의 몸을 부드럽게 훑아주었다
잠시 뒤의 어떤 바람은 풀씨랑 꽃씨를
데리고 와서 놀아주었다
벌레들의 따뜻한 집이 되었다
잃어버린 속도의 기억 한가운데
초록의 꿈들이 자란다
노란 달맞이꽃은 왕관처럼 환히 피어 있다

—김종현 「페타이어」 부분⁷⁾

다소의 장황함을 무릅쓰고 두 작품을 모두 인용한 것은, 이들 작품이 신춘문예의 표절과 유형화의 문제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앞서 인용된 박남희의 「페차장근처」는 1997년 『서울신문』 시 부문 당선작이며, 김종현의 「페타이어」는 200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작이다. 문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 두 작품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작품이 공히 페타이어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곤충’, ‘풀’, ‘바람’, ‘씨앗’, ‘꿈’과 같은 심상들이 비슷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남희의 작품에 비해 당선시기가 늦는 김종현의 작품에 대한 몇몇의 이의제기가 있기는 했지만, 해당 신문사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위 두 작품이 상당부분 흡사한 점이 있다고 해도 표절여부를 쉽게 판가름할 수는 없다. 표절의 여부를 떠나 두 편의 작품은 신춘문예가 요구하는 문법을 착실히 따르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할 수 있다. 두 작품의 결구는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씨앗을 묻는다”(박남희)나 “노란 달맞이꽃은

7) 2004년 『조선일보』 시 부문 당선작.

왕관처럼 환히 피어 있다”(김종현)와 같이 새로운 희망, 혹은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신춘”이라는 타이틀을 고려한 주제이다. ‘삶/현실의 냉혹함’→‘현실극복’→‘희망찬 미래’와 같은 전개는 전형적인 신춘문예식 작품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창작자의 미적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새해 벽두부터 염세적이거나 지나치게 과격적인 작품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사로서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이 고려된다면, 신춘문예 당선작은 예술적 취향의 문제가 상당부분 배제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작동하는 기형적인 창작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신춘문예에 대한 비판적 여론들은 대체로 심사위원의 고정적 위축을 통한 해계모니의 구성, 그리고 당선작의 획일화라는 미적 몰취향과 같은 문제들로 정리된다.

III. 신춘문예 제도를 위한 문학교육

1. 신춘문예를 위한 문학교육의 난점

신춘문예를 위시한 등단제도의 자체적 모순은 문학 전문가 양성 교육에 그대로 이양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자격증’ 갖지 못하면 본격 문학의 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지금의 등단 제도는 교육현장에 많은 난점을 제공한다.

문예공모전을 위한 교육의 첫 번째 난점은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정된 지면에 한정된 인원을 선발-소개하는 문예공모전의 특성상 공모전에 응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에 대한 보상 역시 응모자에게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 물론 상당한 액수를 호가하는 몇몇의 공모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기성 문

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인을 대상으로 하며 거액을 내 걸고 있는 문예공모전의 경우는 창작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분량의 원고를 요구하는 경우보다는 장편소설, 또는 시집 한 권 분량의 작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학 전문가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신춘문예를 비롯한 문예공모전을 낭만적 문학행사로 인지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두 번째 난점은 문예공모전과 ‘등단’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론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문예공모전을 위해 제작된 창작물의 최초 독자가 ‘심사위원’이라는 점은 “작가-텍스트-독자”라는, 이상적 관점으로서의 문학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신춘문예 응모를 독려하는 교육은, 특정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부합하는 창작물을 ‘제작’하여 인준을 받는 기형적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작업처럼 인지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창조능력 함양”, “문학적 문화의 형성”(김대행, 2000) 등 문학교육의 원론적 목표와 상충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자의 문학적 사고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춘문예를 비롯한 각종 문예공모전이 봉착한 한계들, 특히 각종 저널리즘이 문학을 도구로 삼아 특정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공격하는 논의들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세 번째 난점은 문예공모전의 획일적 양식에 부합하는 창작물을 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문예공모전의 시기와 작품의 분량이 획일화 되어있고, 당선작 역시 특정한 형식과 특정한 테마에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단조로운 문학교육의 방법론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이는 문예창작 과정에 있어서의 ‘미적 자율성’ 혹은 개인의 ‘창조적 사고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대학의 문학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제기되는 난점들은 대학의 문학교육이 신춘문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물론 대학의 문학 전문가 육성 과정에는 문학교육 일반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학개론’ 혹은 ‘문학의 기초’와 같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문학교육 프로그램들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작 교육은 문학 전문가 즉 ‘작가’를 육성한다는 논리로 수렴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다면, 대학의 문학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또한 신춘문예 제도의 모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2. 신춘문예를 위한 문학교육의 내용

신춘문예 제도가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학의 문학교육이 일정부분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은 어쩌면 합당할 수 있다. 이미 각 대학에서 문학 교육의 최고 단계에 문예공모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춘문예 제도와 대학의 문학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해서는 신춘문예 응모작 생산을 위한 교육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춘문예 응모작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봉착하는 문제는 한정된 분량의 글을 몇몇 정해진 테마에 맞추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춘문예 당선작이 일간지를 통해 연초에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많은 당선작이 ‘새해의 희망’, ‘정직하고 진솔한 삶의 진리’와 같은 테마에서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신춘문예의 이러한 테마들은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 작품의 분량 역시 시의 경우 최소 20행에 육박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소설의 경우는 원고지 80매 내외로 분량을 정해 놓고 있다. 일례로 2000년대 이후 중앙 8개 일간지(경향,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국)의 시 부문 당선작 94편 중 20행이 되지 않는 작품은 산문시를 몇 편을 제외하고는 3편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⁸⁾

8) 박성현, <폭염> 2010년 중앙일보 : 13행
천수호, <옥편에서 미꾸라지 鰍자 찾기> : 15행
마경덕, <신발論> 2003년 세계일보 : 9행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신춘문에 응모작을 제작하는 과정은 전략적 접근을 요한다. 기본적으로는 계보학적 접근을 통한 신춘문에 작품의 유형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응모하고자 하는 언론사의 심사위원 위촉현황을 분석하고 예측하거나, 역대 당선작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응모용 작품의 기본적 패턴을 숙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는 작업은 당선작들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신춘문에 당선작 강독과 더불어 역대 당선작들 간의 상호 텍스트적 성격을 밝혀내는 작업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응모용 작품이 갖추어야 할 테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각별히 부각되는 사안은 표절과 모작에 관한 것이다. 표절 등으로 문제가 된 작품을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이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작업은 필히 수행되어야 한다. 신춘문예라는 틀에 얽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은 여러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형식적 측면들에 대한 연구는 글쓰기에 대한 기본 사항을 숙지했다는 전제하에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개론의 성격을 띤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작업은 모작하기이다. 소설의 경우 당선작의 주요한 부분의 몇몇 문장이나 단락을 삭제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공란을 채울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단계 이후에는 몇몇 표본이 되는 작품의 플롯, 혹은 화소들을 차용하여 유사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확대 진행된다. 시 창작의 경우는 분량이 적다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작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시 창작 역시 기본적 단계에서는 몇몇 당선작의 제목이나 시어를 삭제한 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이후 비슷한 작품을 제작해 보도록 하는 패턴으로 진행된다. 모작하기 단계 역시 신춘문예의 형식적 특수성을 인지시키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응모작에 접근하는 방식을 위한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응모작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제작과 평가의 과정이 두루 고려된다. 소설의 경우 1편 정도의 작품을 제출하게 하고, 시의 경우는 최소 5편 이상의 작품을 제출하게 한다. 응모작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적합성과 테마의 적절성 등에 관한 교육은 어느 정도 객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후의 창작 과정은 학습자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개인의 창조적 작업의 결과물을 교수자의 주관적 관점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창작품을 발표하고 서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수자가 학습내용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없고, 그 결과 또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은 문학교육 일반에서 겪는 기본적인 고충이기는 하지만 신춘문예 응모작 제작 교육에서는 더욱 커다란 딜레마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춘문예 응모작 제작 과정의 교수자가 기성작가여야 한다는 점 또한 각별히 부각되는 사항이다. 학습자가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교육의 효율성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자가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활동하는 기성작가라고 해도 학습 결과물의 성패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두 번째 단계, 즉 기성 작품을 모작하고 신춘문예 응모작의 형식적 특징을 인지시키는 수준으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비판적 고찰

신춘문예를 위시한 문학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은 매우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글쓰기 교육이다. 사실 신춘문예에 대한 긍정적 논의들 또한 매우 다양하게 개진되어 있다.⁹⁾ 특히 각종

9) 신춘문예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정호웅(1999)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정호웅은 신춘문예 제도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어 문학 지망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신춘문예 제도는 대대적 문예 행사로서 문학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자체로서 생산성을 지닌 문학교육의 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미디어 산업의 팽창으로 인해 ‘문학의 종언’을 예견하는 시대에 권위 있는 중앙 일간지들이 대대적으로 문학행사를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 문학과 문학교육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문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문학교육 과정에서 신춘문예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문학의 도구화와 산업화 그리고 권력화에 지나치게 편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신춘문예를 위시한 문학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춘문예 응모과정을 ‘등단하기’의 과정에서 ‘문학하기’의 과정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현장에서 공모전의 신화를 벗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신춘문예 교육의 난점으로 대두되는 교육 동기의 유발 과정에서 수행되는 신춘문예와 등단제도의 신화화 작업에 대한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개인, 혹은 기성 작가의 인준절차보다는 공모전을 위해 창작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즉 한국 문단에서 대대적으로 치르고 있는 문학축제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를 부각시켜 학습자 스스로가 기존 신춘문예 제도에 접근하는 방식을 한정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문학하기’의 과정은 문학교육의 궁극적 단계로(구인환, 2010) 창작교육의 의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수행되는 문학 전문가 육성 과정이 모두 시인이나 소설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도 없고, 이를 강요할 수도 없다. 창작체험은 일상 속에서 자기존재의 계발을 도모하려는 평생교육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구인환, 2010), 공모전을 배제한 글쓰기 체험에 대한 목표의식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략적 접근과 미학적 접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예 공모전은 분명히 전략적 접근을 요하는 문학 작업의 단계이며, 그 특수성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작품을 읽고, 당선작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접근의 방법론 속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미학적 의의를 발굴하는 작업은 필히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춘문예제도의

신문화로 환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정제된 형식의 당선작들을 검토하며 문학일반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쓰기 능력이 무엇인지를 학습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세기가량 집적된 신춘문예 당선작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요구된다. 그저 모순으로 가득 찬 문예행사, 또는 예술적 감수성이 배제된 물취향적 예술 행사로서 신춘문예를 매도하기보다는, 체계적 연구를 통해 신춘문예 형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부면을 발굴, 창작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쓰기’ 환경의 변화를 명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자에게 신춘문예를 비롯한 문학 공모전만이 유일한 등단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날로 발전하는 대중매체와 그에 따른 글쓰기 환경의 변화, 그리고 특정한 매체에 부합하는 글쓰기로 성공을 거둔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가 기성 문단 외의 작품을 존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학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IV. 결론

대학의 문학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과 신춘문예의 상관관계는 대학의 창작교육이라는 테마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본 논의는 신춘문예가 내포하고 있는 몇몇의 문제에 관해 우선 언급했다. 신춘문예 제도의 문제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문학예술 활동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 평가되고, 이러한 평가 시스템이 문학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춘문예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모순이 문학 전문가를 위한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본 논의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문학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의 수업 모델을 간략히 제시하고, 이를 비판적으

로 검토했다. 신춘문예 응모작을 제작하는 교육 과정은 크게 ‘신춘문예의 유형 파악’, ‘모작하기’, ‘응모작 제작’ 순으로 진행된다. 이는 ‘등단’이라는 목적성에 기반을 둔 문예활동으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학 전문가를 위한 교육이 건전하게 진행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교육의 궁극적 단계로서 ‘창작교육’에 대한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신춘문예의 가치를 새롭게 조망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에게 ‘쓰기’ 환경의 변화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다양한 문학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학 전문가를 위한 교육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기존의 등단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등단 제도와 문학권력에 관한 비판적 검토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며, 교육 현장에서 문학 전문가를 인준할 수 있는 새로운 방편들이 모색될 때 가능해질 것이다.*

* 본 논문은 2011. 6. 30. 투고되었으며, 2011. 7. 15. 심사가 시작되어 2011. 7.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준만(2001), 『문학권력』, 개마고원.
- 구인환(2010), 『문학교육 원론』, 삼지원, 251쪽.
- 김대행(2000), 『문학교육 원론』, 서울대 출판부, 56~60쪽.
- 김정란(1999), “신춘문예 달라져야 한다”, 『1999 신춘문예 당선소설집』, 프레스21.
- 송정숙(1990), “새 그릇에 담아야 할 ‘신춘문예’”, 『한국논단』 6, 한국논단.
- 이명원(2003), “신춘문예제도의 성립과 현재적 의의”, 『과문』, 새움, 211쪽.
- 이재복(2009), “신춘문예의 문학제도사적 연구”, 『한국언어문화』 29, 한국언어문화학회, 373~374쪽.
- 이희중(2005), “대학 교양문학 교육의 현실과 대안”,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25~26쪽.
- 임영태(2000), “신춘문예 규정의 참을 수 없는 관례 하나”, 『인물과 사상』 21, 인물과사상.
- 정호웅(1999), “신춘문예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프레스 21』, 프레스21, 504~509쪽.
- 조재영(2005), “신춘문예 시 연구”, 창원대 박사학위 논문.
- 한 기(1994), “신춘문예 제도 개선 모색할 때”, 『문화예술』 2, 문화예술진흥원.

<초록>

문학 전문가를 위한 교육 내용의 구조화

—신춘문예 제도와 문학교육의 역할—

서덕민

본 연구는 문학 전문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신춘문예의 상관관계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의 문학교육 과정을 ‘교양으로서의 문학교육’과 ‘문학 전문가를 위한 문학교육’으로 구분하였다. 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문예창작학과 신설이 확대되며 대학의 문학교육은 심화된 단계로서의 창작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장을 마련하였다.

신춘문예는 한국의 근대문학성립 과정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시행되어온 문학행사이다. 신춘문예는 특별한 인준절차를 거쳐 문인 동아리를 형성한다는 목적성에 기반을 둔 문예활동으로, 대학의 문학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안이다.

본 연구는 신춘문예의 시행 형태를 고찰하고, 신춘문예를 위한 문학교육프로그램의 실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신춘문예 제도는 문학예술활동이 전문가집단에 의해 평가되고, 이러한 평가 시스템이 문학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본 논의는 대학의 문학교육이 신춘문예 제도에 대응하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핵심어】 문학교육, 신춘문예, 문예창작학과, 문학 전문가, 구조화

<Abstract>

Structural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for Literary Professionals

—Dynamics between a literary contest in spring and the literary education—

Seo, Deok-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programs and a literary contest in spring for professional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college literature courses were divided into "literary education as a liberal education" and "literary education for the literary professionals". Starting from the mid to late 90s, there was a boom in foundation of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and the full-scale place was provided to carry out the creative education as a deeper level.

A literary contest in spring is an event to be steadily enforced from when Korea's modern literature was established until today. A literary contest in spring is a literary activity based on the purpose of which literary circles are formed through special confirmation procedure, which is the first issue to consider in literary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at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form of a literary contest in spring and presents the actual model for literary education program for a literary contest in spring. Even if a literary contest in spring has internal contradictions, it plays a special role in structuralization of literary education at University.

【Key words】 literary education, a literary contest in spring,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literary professionals, structuralization